

광주 레미콘업계 파업

대기업 시멘트값 30% 일방 인상에 사흘간 돌입

장기화 땐 혁신도시·영산강 사업 등 올스톱 우려

광주지역 레미콘업계가 대기업 시멘트사의 일방적인 시멘트값 인상에 반발해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산강 사업과 나주 혁신도시, 민간 아파트 공사 중단 등 지역 건설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광주·전남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쌍용안양화와 동양시멘트 등 대기업 시멘트사의 일방적인 시멘트값 30%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레미콘조합은 “제조원가는 오르는 데 반해 판매단가는 제자리 걸음인 현재의 적자경영 구조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부득이 16일부터 3일 동안 광주권역 26개 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자갈·유류비 인상에 이어 시멘트값이 가격이 인상되면 레미콘 제조원가는 15% 이상 급등,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며 한자릿수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 레미콘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대기업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부터 우선 인상하고, 인상 시점도 레미콘 판매단기에 연동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멘트 공급사들은 단기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레미콘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만 최소

의에 진전이 없으면, 전남지역으로 확대는 물론 무기한 생산 중단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태가 장기화돼 광주지역에서 하루 공급되는 레미콘 2만t(레미콘 차량 3300대 분량)의 공급이 끊기면 국책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 광주 수원지구 아파트 현장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환 레미콘조합 이사장은 “시멘트 가격을 일방적으로 30%나 인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급을 중단한 것은 힘 있는 자의 횡포이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제조 원가가 더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올라 판매단기가 인상 때까지 레미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환기자 jwpark@kwangju.co.kr

취업자 수·고용률 ↑

5월 광주·전남 고용 동향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은 전달에 비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5월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67만9000명, 고용률은 57.4%로 전달의 66만5000명, 56.3%에 비해 각각 1만4000명, 1.1%p 증가했다.

전남지역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지난 5월 90만8000명, 63.6%로 전달(88만9000명·62.3%)보다 각각 1만9000명, 1.3%p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광주와 전남 모두 1000명·1.1%, 3000명·0.3%p가 각각 줄었다.

광주·전남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늘었지만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함께 늘었다.

광주지역의 지난 5월 실업자 수는 2만7000명으로 전달(2만6000명)보다 1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9%로 역 시 전달(3.8%)보다 0.1%p 상승했다. 전남지역 실업자 수도 1만5000명으로 전달(1만2000명)에 비해 3000명 늘고, 실업률은 전달 1.3%에서 1.6%로 0.3%p 올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15일부터 고성능 GD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스타일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쏘울 GDI’의 본격 시판에 나선다.

/연합뉴스

새 심장 달고 강력해진 ‘쏘울GDI’ 시판

기아차, 6단 자동변속기 탑재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아의 디자인 아이콘 ‘쏘울’이 GDI엔진을 달고 ‘쏘울GDI’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아자동차는 15일 가솔린 GD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스타일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쏘울 GDI’를 이달부터 본격 시판한다고 밝혔다.

쏘울GDI는 개성 있고 실용적인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로 스타일과 성능, 안전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쏘울GDI는 기존 1.6ℓ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기존 4단)를 탑재해 기존 모델보다 13% 향상된 최고출력(140ps)과 7% 향상된 최대토크(17.0kg·m)의 동력성을 확보했다.

연비는 기존(15.0km/ℓ) 대비 5%

향상된 15.7km/ℓ의 연비를 달성했다.

특히 공회전 제한장치인 고급형 ISG(Idle Stop & Go)가 적용된 ‘쏘울 1.6 GDI 에코플러스’는 연비가 16.9km/ℓ에 달해 경차 수준이다.

내외관 스타일 및 각종 안전·편의

사양도 향상됐다.

가솔린 직분사 엔진인 감마 1.6 GDI엔진(기존 1.6 MPI)과 6단 자동변속기(기존 4단)를 탑재해 기존 모델보다 13% 향상된 최고출력(140ps)과 7% 향상된 최대토크(17.0kg·m)의 동력성을 확보했다.

판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가솔린 1.6 GDI는 1505만원~1895만원, 가솔린 1.6 GDI 에코플러스 모델은 1655만원~1990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중 ‘쏘울 GDI’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통신비 지원, 1년간 보험 무료 가입, G마켓 쇼핑 지원금 10만원 쿠폰 제공 등 이벤트를 벌였다.

전 차종에 6개의 에어백(운전석·동승석·사이드&커튼)이 기본으로 장착됐고, 경사로 밀립방지 장치 등도 새롭게 적용됐다.

판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가솔린 1.6 GDI는 1505만원~1895만원, 가솔린 1.6 GDI 에코플러스 모델은 1655만원~1990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중 ‘쏘울 GDI’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통신비 지원, 1년간 보험 무료 가입, G마켓 쇼핑 지원금 10만원 쿠폰 제공 등 이벤트를 벌였다.

내외관 스타일 및 각종 안전·편의

사양도 향상됐다.

/박정환기자 jwpark@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大개강(Teps+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



박지현의
날개 페스

매실·뽕 열매 이파리 가지까지 꺾어
항아리에 담아 설탕 절여두면

돈 벌고 건강 챙기고 주식보다 쏠쏠

리 그리고 열매까지 모두 항아리에 담아 설탕에 절여뒀는데 일명 ‘산 뽕 효소’다. 나뭇가지와 이파리 그리고 열매까지 모두가 약이 된다는데 이름은 좀 ‘거시기’ 하지만 효능만큼은 여기저기에 최고라고 한다. 물론 뽕나무란 이름만큼 소화에 탁월하다는 말까지 있다.

혹시 아시는가? 효소 만들기가 주식투자보다 낫다는 얘기!

물론 경제적인 의미다. 1ℓ 가 안 되는 5년짜리 효소 한 병이 20만원 이상 하는 것을 봤다. 물론 전문가가 만든 것과 비교한다는 게 미안한 일자지만 아쨌든 약간의 재료값과 정성과 시간만으로 몇십 배의 가치가 생긴다니 분명 주식투자보다 나은 일 아닌가? 그뿐인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매실을 같은 용량의 설탕에 버무려 소독한 항아리에 담는다.

씨를 없애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정과용이라 그냥 담았는데 쉽게 매실 씨를 빼려면 열매에서 갈라진 부분을 아래로 놓고 위에서 누르거나 나무망치로 톡때리면 쉽게 두 쪽으로 쪼개진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티이다면 항아리 입구를 비닐로 뒤고 고무줄로 청정 동여 잘 묶어 두어야 한다는 점. 항아리에 담아 양자리를 곳에 두면 설탕도 잘 녹고 살균과 발효에 효과적인데 그렇게 2~3개월을 놔뒀다가 진액은 따로 담아 두고 건친 매실로 꿀과 매실 물을 섞어 씀이면 정과가, 술을 부어두면 달콤한 술이 된다.(만드는 법은 다양하다) 놀 느끼지만 자연이 만든 것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여간 버려게 없는 것은 마땅뿐 아니다.

집 입구의 산뽕나무는 가지 채 꺾었다. 가지와 이파

이벤트홀에서 디자이너 샌들·슈즈 대전을 갖고 제시카 심슨, 핑크팬 등 의 신발을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선글라스 특별전도 열린다. 패션스트리트에서는 영개주일 브랜드가 참여하는 바캉스 페스티벌을 갖는다.

15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은 24일부터 열릴 여름 정기세일에 앞서 고객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브랜드 세일 행사 를 펼친다.

이번 세일은 해외명품과 남성의류 브랜드가 재고를 텔어내려 1년에 2차례만 하는 ‘시즌오프’ 기간과 겹쳐 지난 5월 브랜드 세일보다 행사 규모가 큰 것이 특징.

광주 신세계는 17~23일 1층 시즌

‘LOTTE COSMETIC’ 바캉스 페스티벌을 17~19일 진행된다. 주말 3일 8층 행사장에서 롯데·멤버스 카드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코치와 마이클 쿠퍼스 등 해외명품 일부품목을 30~40% 세일 판매하며 닉스숙녀, 지노스, A밀란 등 여성정상상품과, 닉스 핸드백, 바이네트, 소다, 레드우드 등이 여름 정기세일에 앞서 브랜드 세일행사에 참여한다.

이밖에 백화점 3사 모두 해지스, 올젠, 빙풀, 헤리코튼 등 남성 트레이셔널 브랜드 시즌오프를 동시에 실시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백화점들 휴가 준비 ‘브랜드 세일’

내일부터 1주일 간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이 오는 17일부터 유명 브랜드 여름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브랜드 세일에 돌입한다.

15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은 24일부터 열릴 여름 정기세일에 앞서 고객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브랜드 세일 행사를 펼친다.

이번 세일은 해외명품과 남성의류 브랜드가 재고를 텔어내려 1년에 2차례만 하는 ‘시즌오프’ 기간과 겹쳐 지난 5월 브랜드 세일보다 행사 규모가 큰 것이 특징.

한편, 기아차는 이달 중 ‘쏘울 GDI’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통신비 지원, 1년간 보험 무료 가입, G마켓 쇼핑 지원금 10만원 쿠폰 제공 등 이벤트를 벌였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중 ‘쏘울 GDI’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통신비 지원, 1년간 보험 무료 가입, G마켓 쇼핑 지원금 10만원 쿠폰 제공 등 이벤트를 벌였다.

호반건설은 17~23일 1층 시즌

에 남기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기증한다. 지원 신청은 17일 까지이며, 빠르면 이달 말 ‘희망카’를 전달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이 사회복지단체 구성원들의 ‘이를다운 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또 ‘꿈을 현실로 장

학회’와 ‘호반사랑 나눔이’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9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꿈을 현실로 장학회는 지난 11년간 총 3500명에게 54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난 3월 중·고교생 500여명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

임직원 자원봉사 모임인 ‘호반사랑 나눔이’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려운 이웃 지원과 환경정화, 문화재 지킴이 등 활동을 펼고 있다. 문의 02-2007-7173, 7176.

/박정환기자 jwpark@kwangju.co.kr